남원시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골머리'

정부 지침 매출 30억 이하로 변경
100여곳 해지 주민 불편 불 보 듯
권고안 어길시 보조금 페널티 고민

'지역사랑상품권'〈사진〉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대해 남원시가 시민 불편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행안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 역시 등록이 취소된다. 행안부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남원에서는 100여개 업체의 가맹점 등록이 해지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더이상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내권보다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과 농축산물 판매처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예외, 기존 가맹점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적용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 판매가 개별 농민이고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대상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한정됐다. 최대 10%의 할인율로 68개의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기준 4000여 업소에 이른다.

문제는 예산이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남원시의 할인지원금은 110억원, 이중 58억원이 국비여서 이를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기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리가 따른다. 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는 페널티와 함께 인센티브 제한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로서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에서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병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해지 대상이 돼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춘 정책이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국제교류협력센터 농업분야 국제협력 업무협약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고인배(왼쪽) 소장과 전북도 국제교류협력센터 김대식(오른쪽)센터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해 전북도 국제교류협력센터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국제교류협력센터와 도내 농업기술의 해외 전수를 위한 협력체계구축 및 추진,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유치, 업무 관련 자료 공유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협력사항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디지털농업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환경관리를 위한 열회수형 환기, 환기팬보급, 기상관측장비 등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평야지, 고랭지 농업기술까지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남원지역을 국제 연수사업의 최적지라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남원의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릴 수 있게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하인호 농어촌공 정읍지사장 마약범죄 심각성 알리기 'NO EXIT' 릴레이 캠페인

하인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해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NO EXIT'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해 동참할 수 있다.

하인호 지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정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과 이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을 지목했다.

하인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은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힘을 모아 마약근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

주민 200여명·관련 기관들 참여

고창군이 한빛원전 방사능재난을 대비해 2023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했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훈련은 발전소 인접지역인 상하면을 포함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과 강호항공고 학생 등 2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또 8098부대,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훈련에 참여한 원전 인접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비상발령 시 계획에 따라 차량을 이용해 구호소인 군립체육관으로 대피했다.

주민들은 구호소 입장 전 방사능오염 검사 후 체험부스를 둘러보고 방사선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받았다. 고창군은 구호소 내 재난 사진전시, 방사능 측정 체험관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방사능재난 이해를 도왔다.

고창군이 지난 3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한빛원전 방사능재난을 대비해 2023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도 운영돼 훈련 상황을 지휘하고 비상대응 정보 교환시스템(ERIX)을 이용하는 등 실전적 훈련이 실시됐다.

이광수 고창군 안전총괄과장은 "고창군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체계 점검과 실제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고창군의 방사능 방재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어린이집 원생 90여명 신나는 나만의 텃밭 만들기

고창군농기센터 체험 행사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어린이집 원생 90여명과 함께 고창문화의전당 앞에서 작은 텃밭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식물의 종류와 성장과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원예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면서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 활동으로 진행했다.

각자 심은 모종 앞에 어린이 이름표를 작성하는 나만의 텃밭 만들기 시간도 가졌다. 고창군은 앞서 문화의 전당 앞 조형물 주변 공간을 활용해 오이, 가지 등 다양한 농산물 식재와 복분자, 블루베리 등 고창의 특산물을 화분으로 만들어 배치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작은텃밭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텃밭·원예활동이 소통과 나눔의 활력소가 돼 좋은 추억과 경험을 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텃밭이 군민들을 위한 힐링의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매출 0.5% 최대 30만원 지원

정읍시가 물가상승·경기침체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7월4일까지,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수수료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한 내에 사업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